

##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4군)

성경말씀: 눅10:25-37

지난 두 주, 70명 선포, 마귀 패배,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 영으로 기뻐하심(21)

1. 창조주 아버지를 아는 사람, 2. 아들을 아는 사람, 3. 성령님과 말씀을 아는 사람  
특징(21),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단순하게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

### 배경

그러면 그 반대되는 사람은 누구인가? 유명한 종교인들, 제사장, 서기관, 율법 박사,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말을 듣고는 곧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율법사가 일어나 질문함(25)

진리를 알고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시험의 도구로 삼는 사람, 주님의 고통이 되는 사람  
사실 랍비는 이런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고 사람들이 궁금해 했다. 그런데 누구인가? 율법사이다.  
사실 그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말씀을 다 알고 있었다(27). 다만 체면을 위해 시험하려 했다.

그러자 주님은 그를 율법으로 데리고 들어갔다(26-28). 그리고 율법의 목적을 알려주려 하였다.

율법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다. 사람의 연약함을 보여 주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휼을 얻게 하는 것  
그런데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믿었고 자랑하며 다녔다.

이 율법사의 대답(27)은 율법의 요약(마22:35-40), 매달려 있다.

신6:5, 유대인들의 쉼마(들으라). 아침저녁으로, 머리와 손에 가죽 성구함(신6:4-8)

그는 레19:18을 제대로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실제로 무엇인지 자신에게 비적용  
구약의 율법의 특징: 가난한 자, 타국인, 고아,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 그들이 이웃이다.

신14:28-29, 15장의 면제 규정(1-6), 가난한 자 배려(7-11), 희년 제도, 안식년 제도

그러나 그들은 그리하지 않고(마23:23) 율법의 글자만 지키려 하였다(고후3:6). 글자는 죽임

그리고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유치한 질문을 하였다(29). 이것이 그의 모티브

롬10:1-4

###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30-35)

이 이야기는 비유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다. 어쩌면 그 당시에 일어난 실화일지도 모른다.

이것을 비유로 생각하고 단순하게 해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기의 희생자는 반쯤 죽은 죄인(육은 살고 영은 죽음),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는 율법과 희생 예물,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 구원하고 돈을 내 주고 다시 온다고 함(35),

여관은 교회, 이 테나리온(35)은 2000년 혹은 침례와 주의 만찬, 이렇게 나가면 핵심을 잃는다.

핵심은 무엇인가? 36-37, 공휼을 베푸는 자가 이웃이다.

왜 원수에게도 공휼을 베푸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한다(27; 레19:18).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그의 믿음에서 나오는 공휼의 선한 행위

예수님의 제자의 특성(눅6:35-36)

세리들과 죄인들을 사랑하시며 하시는 말씀(마9:10-13)

### 세 종류의 사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강도 투성이,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나 다 털리고 반쯤 죽게 됨(30)

제사장(31); 예루살렘에서 성전 봉사, 피곤한 상태로 집으러 가는 중, 이 사람에게 손을 대면 부정하게

될지 모름(레21), “많은 사람들, 굳이 왜 내가, 내 잘못이 아닌데, 나는 성직자야”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율법의 반은 내버림, 우리는 어떤가? 주변 배려

레위 사람(32): 제사장의 책무를 돕는 사람, 백성의 세금으로 살며 하나님의 일만 하는 사람

유대인들의 삼단논법 비슷한 논리: 제사장, 레위사람, 그 다음은 평범한 유대인(목사, 장로, 평신도)

그런데 그 율법사와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마리아 사람이 튀어나옴,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 OK, 그러나 그 반대는 Never

사마리아 사람들은 북 이스라엘 멸망 이후에 이교도들과 피가 섞인 혼혈 민족, 예루살렘 접근 금지

그래서 그리심 산에 자기들의 성전을 세우고 모세오경만을 믿으며 광신적인 예배를 드림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버리고 간 유대인을 목숨을 다해 정성을 다해 돌보아 줌(33-35).

먼저 불쌍히 여기고(33), 상처를 싸매고(34), 짐승에 태워 여관에, 이 데나리온, 더 주겠다(35).  
즉 그 사람을 자기와 같이 사랑함(27):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그는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기에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행하였다.  
여기에 무슨 논리가 있는가?

하나도 없다. 오직 한 가지 이유: 그는 그를 불쌍히 여기고 공흠을 베풀었다.

제사장, 레위 사람, 율법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공흠을 베풀라고 하시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아침저녁으로 쉼아 암송, 그날 아침에도 이 둘은 쉼아 암송, 그런데 실행이 안 됨,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의 질문(36)과 그의 대답(37)

누가 우리의 이웃이나?(한국사람, 중국, 미국, 일본 사람, 지역, 인종, 남녀노소, 빈부귀천 No!)

불쌍히 여기고 공흠을 베풀 대상이 다 우리의 이웃이다.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라(37):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이것은 결코 행위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품성을 말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평가(마23:2-3)

율법사와 예수님 비교: 1. 일반적인 질문, 구체적인 대답, 2. 복잡하고 철학적인 문제, 단순하고 실제적인 문제, 3. 의무, 사랑, 4. 논쟁, 실천(논쟁을 위한 논쟁은 무의미)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율법사는 더 좋은 사람, 이웃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공흠 베풀기  
우리 역시 킹제임스 스티커, 성경 자랑, 미디어 선교 자랑, 교회 자랑 하면서 핵심을 놓치고 있는가?

동일한 유대인: 1. 강도들은 탈취의 희생물, 2.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피해야 할 방해물, 3.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야 할 이웃, 우리는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아야 하는가? 의도적으로 거부하지 않으면 도움을 줄 대상으로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이 불쌍히 여겨야 한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웃 사랑을 하라는데 그러면 이웃이 누구인가?

여러 각도에서 성경 전체를 보면 이웃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1. 인간으로서 인간답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공흠을 베풀어야 한다: 인류애로서의 공흠  
불신자들도 바른 인간성을 가졌으면 다 하는 일, 오히려 더 잘함, 선행 구원, 하나님도 악인 사랑
2. 그런데 크리스천으로서 공흠을 베풀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면 안 된다.  
진화론자, 공산주의자, 동성애자, 타종교인,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만 죄는 죄라고 말한다.  
그것이 참 사랑, 그래서 복음과 진리 선포
3. 성경에 보면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믿음의 동지들을 위해 헌금도 하였다.  
그러나 교회는 자선 기관이 아니다. 세상의 수많은 약자와 빈자를 교회가 먹이고 살리지 않으며 못한다.  
그러므로 먼저 성도들 가운데 도울 자가 있으면 하고 외부도 해야 한다(부차적인 일).  
그러나 교회의 최우선 목표는 성도들의 성숙과 훈련이다(엡4:11-13).
4.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심정으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지 가난하고 불쌍한 모든 사람을 구제하라는 것이 아니다.
5. 또한 개인과 달리 교회는 모든 것을 다 수용하는 곳이 아니다.

음행의 문제(고전5:1-8) 설명

복음 전도: 동성애자, 공산주의자, 진화론자, 간음하는 자, 교회로 데려올 수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으면 교회에는 들 수 없다.

계속해서 폐만 끼친다. 가르치고 알려줘도 변화가 없으면 교회에서 권면하고 징계할 수 있다(살후 3:10-12, 14-15).

6. 가장 큰 이웃 사랑: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전하고 알리고 가르친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1차 목표, 하나님의 공흠을 실제로 실행하는 것